

전북서 자동차-뿌리산업 '협업의 장' 선다

'융복합 협업페어' 22~23일 새만금서 포럼 등 행사 다채 도내 기업 20곳 참여 채용박람회...전기차 기술 전시관도

전북지역의 자동차와 뿌리기계산업을 조망하는 '제3회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페어'가 22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북도가 주최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 '옹비(雄飛)하는 전북 자동차-뿌리산업'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군산시 등 1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글로벌 전기차 육성 업무협약, 자동차 대체

부품 국제포럼, 기술개발 성과 전시, 전기차, 상용차-특장차 전시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전북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명품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약 선포식이 펼쳐지는데 전기차 생산 준비를 시작한 (주)명신 등 11개사의 기업이 참석한다. 이들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

시, 김제시, 완주군 등의 지자체와 도내 유관기관, 대학 등이 전기차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관이 동참의 뜻을 선언할 계획이다. '2019 자동차 대체부품 국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들이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갖고, 대체부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정보 교류의 장을 벌인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박람회도 진행, 진흥주물 등 도내 기업 20개사가 참여한다. 이 외에도 기술 융합과 협력을 주제로

한 자동차-뿌리 기업 및 전기전자 기업과의 기술협력, 융합 촉진을 위한 전기차 기술 융합관 등 우수사례 전시관이 구성된다. 지역 전기-전장 기업의 부스를 마련해 도내 기업과 협력을 통한 융합의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자동차 및 미래기술 전시와 야외광장에는 도내 상용차 및 특장차, 캠핑카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정읍시,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 운영 양식장 수산생물 세균성 전염병 등 피해 예방·확산 방지

정읍시가 지역 내 양식장 현장에서 수산생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어류 이동병원은 양식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생충성,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초동진단과 처방을 하게 된다. 전북도 수산질병센터 관련 공무원과 어류 질병 전문가인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참여해 처방전을 직접 발부한다. 또 질병 관리방법과 예방강구를 위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식업의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 운영으로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양식 어민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전염병 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은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이끌 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섯꺼리 아카데미' 수료식을 갖고 농업전문가 44명을 배출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 문화자원 발굴·6차 산업화 이끌 농업전문가 육성 '다섯꺼리 아카데미' 종료...전문가 44명 배출

고창지역의 문화자원 발굴과 6차 산업화를 견인할 농업전문가 44명이 배출됐다. 고창군은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찾고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를 이끌 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섯꺼리 아카데미'가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다섯꺼리 아카데미에는 총 70여명이 참가해 최종 44명이 수료했다. 다섯꺼리는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5개 주제(떡거리, 볼거리, 잘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로 농가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수 코칭-맞춤형 심화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4년째 이어오는 아카데미는 농가별 맞춤형 코칭교육을 추진해 역량 향상과 농촌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다섯꺼리 교육을 주관하는 김수남 품판사업단 단장은 "고창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충분한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고 적극 발굴해 지역 농촌·농업의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공동육아나눔터' 2곳 운영 익산시, 양육부담 해소 주력

익산시가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공동육아나눔터는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남부시장 2층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곳만큼 이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곳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소통창구 역할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도 하고 있다. 1일 평균 30여명의 유아와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400여명, 올해 9월 현재 660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최근 장신지구 휴먼시아 단지에서 2호점을 개소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공간은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2호점에는 시의 신중년 사업과 연계해 퇴직자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 육천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잇따라 순창군산림조합 1000만원·원세창씨 500만원 등

순창군 육천장학회에 최근 장학금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순창군 육천장학회는 순창군산림조합(사진)이 1000만원, 순창군 풍산면 출신 원세창씨가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순창군 육천장학회의 기탁금은 올해까지 17억여원이 조성돼 매년 순창군 지역 학생들에게 4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남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박차...악취민원 해소 나서

하반기 시내권 차집관로 정비·하수도시설 확충 추진 남원시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노력으로

하수도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권의 차집관로를 정비하는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700억·국비 490억원, 시비 210억원)과 농어촌마을하수도 2개 지구(용전지구, 서도지구)를 대상

으로 면 단위 지역 하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청주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남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하수도시설 확충도 계속된다. 환경사업소는 올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272억

원) 추진을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강인식 남원시 환경사업소장은 "하수관로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로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3 **일반 / 공유오피스 사무실**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